

# 한-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해 손잡다

-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등 협력 확대키로 -

이인실 특허청장은 10월 25일 오전 10시(도하 현지시간) 카타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모하마드 하산 알 말키(Mohammed Hassan Al Malki) 차관보와 지식재산 분야 고위급 회의를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카타르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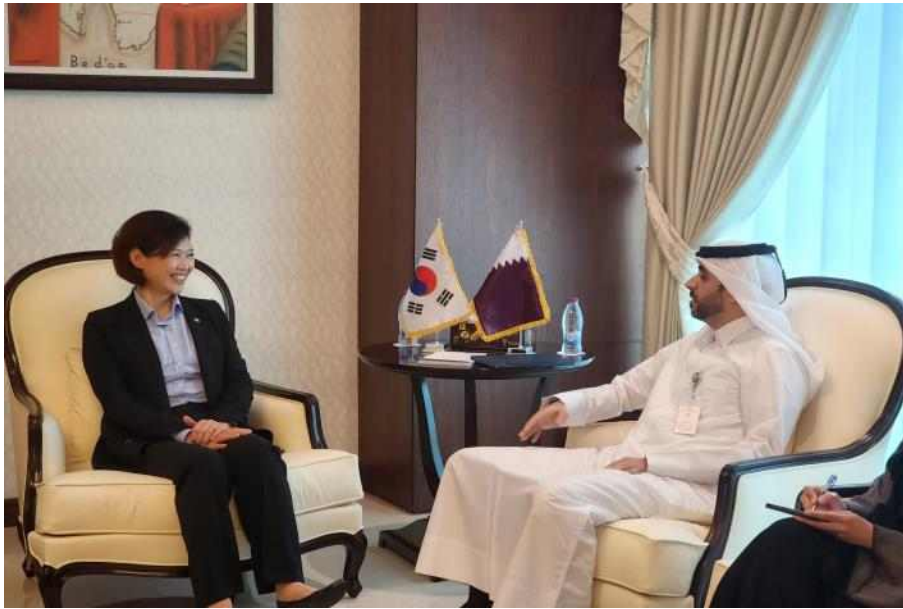
한국과 카타르는 지난 6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금번 고위급 회의에서 양국은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 지식재산 분야 국가비전 및 목표 설정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분야 국가전략과제 도출 등의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실무회의를 향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특허청은 이미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과 사우디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비결을 바탕으로 카타르에서도 성공적으로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양국 간 긴밀한 지식재산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진 5개 특허청(IP5)\*의 일원인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체계가 중동지역에 전파될 수 있게 되어 현지에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한, 미, 중, 일, 유럽 특허청간 협의체로 2007년 출범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와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는데, 이번 카타르와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중동에서 지식재산 분야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향후 카타르와의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체계를 전파하는 한편,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정대순 (042-481-5063)
		담당자	서기관	황상동 (042-481-8659)



< 사진 설명 >

사진 1 :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이 10월 25일(도하 시간) 카타르 통상산업부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청사에서 하마드 하산 알 말키(Mohammed Hassan Al Malki) 차관보(오른쪽)와 고위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2 :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에서 4번째)이 고위급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